

EU산 수입 확대에 수출 줄었다!

2011년 수출 361억유로에 수입 325억유로 ... 한국만 수출 마이너스

유럽연합(EU) 27개국의 2011년 한국 수출액이 전년대비 16% 증가한 반면 한국산 수입액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EU의 2011년 한국 수출액은 325억유로로 2010년 279억유로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한국산 수입액은 392억유로에서 361억유로로 줄어들었다.

EU의 상위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9개국의 EU 수출이 증가했으나 한국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EU의 한국 무역적자는 2010년 113억유로에서 2011년 37억유로로 3분의 1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EU는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입총액이 2010년 1조5091억유로에서 2011년 1조6850억유로로 12% 증가했다.

EU의 2011년 총 수출액은 1조5316억유로로 2010년 1조3496억유로에 비해 15% 증가했다.

이에 따라 EU의 무역적자는 2010년 1595억유로에서 2011년 1541억유로로 3.4% 감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19>